

호실적 메리츠화재... 김용범, 첫째도 둘째도 '영업력' 강조

(메리츠화재 부회장)

상반기 순익 4640억 '역대 최대' 직원들에 영업본질 경쟁력 당부 IFRS17 선제 대응 자신감 보여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 본질에 대한 집중을 주문했다. 또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에 대한 선제 대응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달 직원들에게 보낸 대표이사(CEO) 메시지에서 "(8월 기준) 유실적 인원은 1만742명으로 전월 대비 236명 하락했고, 생산성 역시 26만 3000원으로 유사암 절판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감소했다"라며 "한 달 한 달 실적에 당황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의 경고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유사암 진단비 보험

가입금액을 일반암의 50% 수준으로 축소했다. 유사암진단 보장상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실제 소요비용보다 높게 보험가입금액을 책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유사암 관련 상품

판매가 활발해지며 상대적으로 8월 들어 실적이 주춤해졌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영업 본질 경쟁력 집중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오직 영업의 본질 경쟁력을 배가시키는데 집중해 달라"라며 "시장 규모의 변화, 상품 경쟁력의 변화 등 외부요인의 변화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폭발적인 도입의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양질의 매출 증대'라는 선순환 공식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선 차고 넘칠 정도의 영업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성공들이 축적되고, 성공 경험이 전파된다면 언젠가 그랬냐는 듯이 상황은 반전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8월 한 달 실적은 절판 마케팅에 따라 전월 대비 주춤한 것일 뿐 여전히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전사 아메바(내부 기준에 따른 평가액) 매출은 902억원으로 예정 대비 달성률은 112%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장기인보장 매출도 95억원을 거둬들이며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상반기에 이어 매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64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늘었다.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에 이어, 역대 최대의 반기 실적이다.

김 부회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메리츠화재의 선제 대응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일 IFRS17 테스트 크포스팀(TFT)이 정규조직화됐다. 이제 IFRS17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가치경영 기초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I

FRS17 조직은 결산작업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오는 10월 1일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의 정체성인 '혁신'을 담은 공중과 광고 등이 진행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100주년 광고에서는 메리츠화재 혁신의 원칙, 혁신의 방식, 혁신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새로운 100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2025년 메리츠화재가 진정한 1등 기업으로 거듭날 때도 우리의 무기는 혁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법인 품질관리 철저"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 중대 회계부정 적발시 엄정 제재



이 원장은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 유지·함양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사진)장은 6일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컨시던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지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규제개선과 불합리한 업무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사후적발·제재를 실시하되,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

행하겠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 3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가상자산 회계감독 이슈와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 보유 시 적용 지침만 있을 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는 "가상자산 회계 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문화할 예정"이라며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마련 중인 제약·바이오회계처리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증선위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B금융그룹, 태풍 긴급 구호성금 10억

구호키트·급식차 등도 함께 지원

KB금융그룹이 신속한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선다.

KB금융은 이번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긴급 구호 및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10억원의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긴급 구호 및 시설 복구,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

거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계획이다.

기부금 외에도 KB국민은행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및 급식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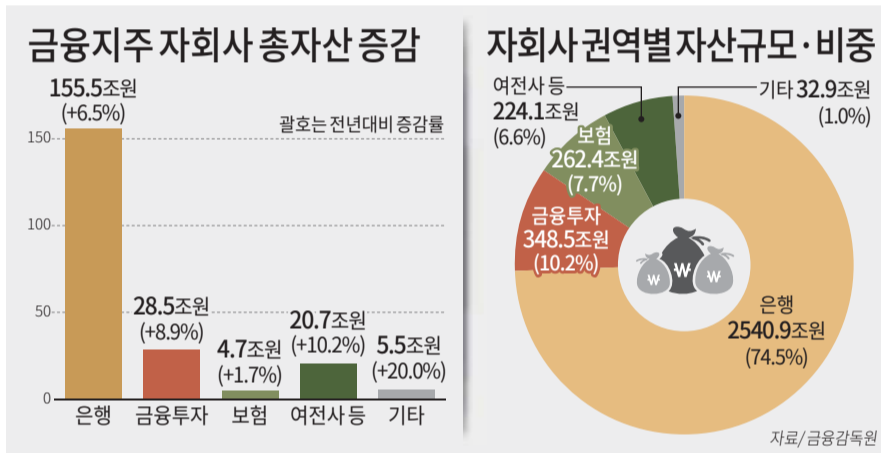
전달되는 성금 외에 KB금융 주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객들이 마음을 전하거나 편리하게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도 오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진행한다.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고객들은 KB금융그룹의 7개 계열사(K

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캠페인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 가능하다. 참여 고객당 1000원씩 적립되고, 총 적립된 금액을 KB금융이 기부할 계획이다.

'직접 기부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 인터넷뱅킹', KB증권의 'M-able(MTS), HTS, 홈페이지', KB국민카드의 '모바일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별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 및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금융지주사 상반기 순익 12.4조... 7.9% ↑

은행 9652억... 전체 비중 상승 금투 빼고 은행·보험 모두 올라

올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익이 12조40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KB·신한·농협·우리·하나·BNK·DGB·JB·한투·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은행의 순이익이 9652억원(13.9%)을 기록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증가율로는 보험업권이 30.3%(3592억원)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투자는 수수료수익 감소 등으로 1조325억원(35.2%)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은행계열 지주회사만 놓고 보면 2분기 중에 대손비용이 늘어나면서 순익 증가폭이 1분기보다 5279억원 감소했다.

자회사 권역별로 보면 은행에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9% 증가한 7조893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는 30.3% 증가한 1조5444억원, 카

드·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는 15.6% 증가한 2조244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금융투자 순이익은 주식 하락장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투자부문은 13.6%로 전년 동기 대비 8.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6.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권(11.0%)이나 여전업계(16%)도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금융투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로 같은 기간 8.5%포인트나 감소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연결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3409조원으로 지난해 말(3203조원)보다 206조원(6.4%) 증가했다. 은행 총자산은 155조5000억원(6.5%), 금융투자는 28조5000억원(8.9%), 여전사 등은 20조7000억원(10.2%) 늘었다. 보험 총자산은 4조7000억원(1.7%) 소폭 줄었다. 총자산 대비 자회사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5%(전년말과 동일)로 가장 높았다.

/구남영 기자

신한은행 자산관리 상담 이벤트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관리 니즈를 충족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의 꾸준한 투자를 위한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크 서비스'는 신한은행 내 금융, 세무, 부동산 전문가들로 스페셜팀을 구성해 고객의 자산을 분석하고 1:1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전 금융기관 합산 금융자산 3억 이상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